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영길 원광대 문예창작학과교수

한자를 섞어 쓸 것인가 한글로만 표기할 것인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 국어기본법 위반 확인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있었다. 국어기본법의 한글로만 표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자리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규 교과서나 공문서는 한자를 섞어 쓸 수 없고 모두 한글로만 써야 한다. 이 조항이 어문 생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관련단체에서 헌법 소원을 낸 것이다.

국어기본법 헌법 소원 사건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심재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출석하였는데, 그는 한자와 한글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공생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점을 무시하고 학교에서 한글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국어교육이 파행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같은 대학의 권재일 교수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정보 효용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한문 혼용은 일제 식민지가 낳은 기형적인 표기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따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다. 반대 측 대리인 변호사도 정보화 시대에 한글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으므로 ‘한글이 언어 인권에 이바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국어기본법의 이런 조항들이 학습권을 훼손하고 또 문자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였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할 일이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에 앞서 두 가지 점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먼저 한글 전용이 국어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다. 우리말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문 학술 용어는 물론, (서류)결재와 (카드) 결제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데도 한자를 익히는 것이 유리하다. 또 국어정서법에 맞게 표기하기 위해서라도 부득불 한자를 알아야 한다. 사이시옷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이시옷 표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수돗물’에는 사이시옷이 필요하지만, ‘수도세’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한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뇌졸중(腦卒中)을 뇌출중(腦卒症)으로 잘못 알거나,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온다’ ‘집으로 돌아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와 같은 틀린 표현을 하게 된다. 심지어 국어와 한글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거나 한자와 한자어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자(漢字)라는 호칭의 유

래를 잘못 알고 한자를 무조건 외국어로 취급하려는 태도는 곤란하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자(訓民正字)가 아닌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 반포하신 의도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한글 전용이 국가 장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글은 정보화 시대의 유용한 도구지만 세계화를 염두에 둔다면 한자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자는 우리 글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의 유용한 소통 도구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무역 및 관광 상대국 가운데는 한자 문화권 국가가 많다. 자칫하면 우리나라 문명국 신세가 될 수 있다. 한글과 한자를 국어의 양 날개로 인식하면 문화 잠재력이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 소리글자와 뜻글자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언어 구조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교칼럼

교회력에는 아버지 주일이 있다고 전하라



양홍 서광교회 협동목사

다”고 하셨습니다. 인류 구속의 대업을 성취하는 이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자기를 못 보는 그들의 사죄를 아뢰게 비는 그 뜨거운 아가페의 사랑이 복받쳐 오르는 그 한복판에 클로즈업된 모습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앞날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신 그 숭고한 인간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애가 우리 가슴을 저리도록 울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과 믿음이 빠르게 식어가는 차가운 시대, 이 속에서 마음과 불신이 열병처럼 번져가는 병든 사회로, 타락해 가는 슬픈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 삭막한 세대에서 목마르도록 아수론 것은 파스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샘솟듯, 우리들의 대화에서 노래처럼, 우리들의 사귄에서 향기처럼 풍기는 그윽한 사랑이 그리웁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인심은 변해도, 변하는 인심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디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과 믿음이 식어가고, 살벌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아버지 주일을 맞는 감격이 뼈저리도록 절실한 것입니다. 5월 둘째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를 기념하게 된 것은 깊은 골목에서 솟는 사람의 샘물이 고여서 우물이 되고 흘러서 강물이 되어 바다를 이룬 것으로써 넓은 인간애의 극치를 깊이 가슴에 새기게

하는 높은 금자탑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끊는 효성으로 자녀의 혼을 불살라 줌은 혈연의 사랑에서 넓은 인간애로 연쇄해 모든 자녀에게 호도의 정성을 고루하는 것이 아버지 주일이라 하겠습디다. 영원과 시간, 절대와 상대, 표면애와 편애의 유비에서 높은 차원의 세계가 강조된 것이고 결코 그리스도교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분명 도덕으로 경시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님은 말한 나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는 진리의 사랑 속에서 숭고한 효도를 새롭게 계시하는 윤리적 종교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주일은 이런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전 세계에 널리 선포하는 선 증거를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교 심계명 중 제5계명으로 효도는 인류에 대한 계명의 제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촌 감산씨는 “인간의 사랑은 그림자 사랑”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빛이 지고 어두우면 사랑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햇빛처럼 밝고 좋은 환경에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도 어두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구름만 끼여도 그 수많은 친구들이 다 떠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유독 아버지의 사랑만이 어두운 밤이면 더 밝게 비추는 별빛처럼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것은 강보에 싸여서 자랄 때부터 괴로움과 수고를 기쁨으로 겪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병 들어 누우면 밤이 새도록 머리맡에 지켜 간호와 기도로 밤을 새우시는 아버지입니다. 가난과 곤고에 에워싸면 자신은 굶어도 자녀를 먹이고 자녀를 위한 모든 희생을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말게 받으시는 아버지입니다. 내 자식이 실패하면 남은 비롯어도 그럴수록 아버지의 사랑은 더 애타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아들 어거스틴을 염려하는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말한 알브르시어스의 유명한 말을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지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의 위력입니다. 고귀한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대한 역사적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역사는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고 한 영광사우엔 찬사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의 위대성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겠습디다. 효도는 윤리나 율법적 계명이기 전에 이 자기 부정적 깊은 사랑에 호응하는 자녀들의 자연적이요, 필연적인 생명의 응답인 것임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살아야 하겠습디다.

기 고



박영길 국립 자연휴양림관리소 팀장

아카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는 그 많던 가시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다른 나무에 피해를 주지도 않고 견속재, 악기재와 같이 쓸모있는 목재로 성장한다. 다만, 아카시를 제거하면 할수록 가시가 많이 생기면서 더 많은 맹어(萌芽)가 발생해 ‘아카시 나무가 많은 곳은 산이 망가진다’는 선입견으로 나무가 쓸모도 없을뿐더러 산을 망가뜨리는 수종이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 다행히 이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최근에는 아카시 나무를 많이 심고 있어 경제적인 가치가 증진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년 선거가 있는 짝수해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1996년 5368ha·2000년 2만5953ha·2002년 4467ha)해 엄청난 피해가 있어 많은 긴장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전국적으로 307건에 209ha로 2015년(623건·418ha)에 비해 반절 수준으로 산불이 많이 줄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다. 국립 자연휴양림에서도 이용객들에게 야외 취사나 바비큐를 금지하고 산불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하였는데 불편함에도 많이 참아주고 협조해 주신 많은 국민들에게도 감사 드린다. 최근 캐나다 산불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 지

역이 캐나다 앨버타주로 몇 년 전 산불진화 선진기술을 배우러 갔던 곳이라 이런 대규모 산불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려 서울시 면적 3배 정도 크기의 산불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이재민만 10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8조원에 달해 국가재난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특별히 많은 비가 내리기전까지는 산불을 진압할 뾰족한 방법도 없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도 이런 대규모 산불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가옥이나 목재피해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 파괴,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야 할 산림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 피해는 그야말로 상상초월이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국토의 여건과 산림의 여건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산불 발생이 내·밭두렁 소각, 산림 내 취사행위 등 대부분 인위적인 것에 비해 캐나다는 낙뢰와 같이 자연적인 현상에 따라 대부분 산불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산불이 나면 30분 이내 일선 산림부서뿐만 아니라 산림청까지 산불상황이 전파되고 산불진화 헬기와 산불전문 진화대, 공무

원, 주민 등 모든 행정력이 동원돼 초동진화가 이뤄진다. 그러나 캐나다는 넓은 국토와 산림면적에다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가 대부분이어서 진화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산불도 자연현상중의 하나라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산불진화는 안하고 집중번으로 옮기지 않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산불진화와 비가 오거나 해서 자연적으로 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산불진화 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른데 만약 캐나다에서도 산불 발생 즉시 모든 진화장비와 진화인력을 총동원해 초동진화했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과 같이 적극적인 초동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탐스럽게 핀 아카시 꽃을 보면서 산불방지 임무가 무난하게 마무리되어 간다는 안도감과 함께 적극적으로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을 가꾸고 율창하게 하면서 산림휴양, 산림복지까지 우리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다행이다. 우리나라에 아카시 꽃이 핀 것 같이 캐나다에도 하루빨리 아카시 꽃이 피기(산불 진화와 산불위험이 없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전두환 ‘발포 결정’ 관여 사실로 드러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도록 하는 군의 자위권 발동 결정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론 자신과는 무관하며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물증이 공개됐다. 물증은 다른 아닌 1979년~1981년 4월 5공화국 출범 전후 정치·사회 현안을 다룬 책자인 ‘제5공화국 전사’다. 1982년 5월 신군부 실세인 당시 박준병 보안사령관이 펴낸 이 책자에는 중요 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1980년 5월21일 국방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에 출동한 군인들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는 자리에 전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책자를 입수한 한겨레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어제 자세히 보도했다. 이 책의 5·18 관련 내용을 보면, ‘(80년 5월) 21일 2군사(영부) 사령관 등이 육본으로 올라와 참모총장을 뵈고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다’라고 돼 있다. 이어 “건의를 들은 참모총장은 ‘대

단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자’고 하여 찾아간 장관실에 권 발동 결정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론 자신과는 무관하며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물증이 공개됐다. 물증은 다른 아닌 1979년~1981년 4월 5공화국 출범 전후 정치·사회 현안을 다룬 책자인 ‘제5공화국 전사’다. 1982년 5월 신군부 실세인 당시 박준병 보안사령관이 펴낸 이 책자에는 중요 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1980년 5월21일 국방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에 출동한 군인들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는 자리에 전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책자를 입수한 한겨레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어제 자세히 보도했다. 이 책의 5·18 관련 내용을 보면, ‘(80년 5월) 21일 2군사(영부) 사령관 등이 육본으로 올라와 참모총장을 뵈고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다’라고 돼 있다. 이어 “건의를 들은 참모총장은 ‘대

박승춘 보훈처장의 저가증스러운 미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또 다시 광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엇그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 처장은 뽀글뽀글 웃는 듯한 묘한 웃음을 흘리는가 하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박 처장은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유족들에 떠밀려 행사장을 벗어나면서도 기념식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는 ‘책임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유족을 위로하고 정부 기념식을 주관하는 책임자로서 기념식을 파행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반성언어를 비롯한 미소까지 지어 더욱 분노를 샀다. 박 처장은 행사장을 벗어나며 “저를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결정권이 청와대나 보훈처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얼버무리기도 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결정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박 처장은 육군사관학교 27기로 2004년 북한 경비정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사건과 관련 당시 북측과 교신내용을 일부 언론에 공개해 물의를 빚어 전역했다. 이후 박 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보훈처장으로 임명돼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됐다. 고 안현태 전 경호실장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서 사과한 적도 있는 박 처장은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제창을 위한 기념식을 주관하는 책임자로서 기념식을 파행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반성언어를 비롯한 미소까지 지어 더욱 분노를 샀다. 박 처장은 행사장을 벗어나며 “저를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결정권이 청와대나 보훈처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얼버무리기도 했다. 그러면 도대체

無等鼓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개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아전인수’(我田引水) 식 이중 잣대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국가도 예외는 아니며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하며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최근 일본의 행태가 바로 그렇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거짓’으로 치부하며 한사코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망언도 서슴지 않는다. 집권 자민당 사쿠라다 국회의원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직접으로서 매춘부였다. 그것을 피해자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의 가시’라면서 “위안부 강제 연행은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은 또,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일본인을 죽여라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6000여 명의 우리 동포를 학살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일본이 히로시마 원폭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이 사실을 통해 “미국 대통령의 피폭지 방문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가해자’인 일본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했지만, 대다수 일본인은 오블관언이다. 오히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빨리 끝내기 위해 원폭을 투하했던 결정에 대해 일본에 사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마저 일어난다. 일본이 미국의 히로시마 방문을 오매불망 요청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폭이 투하된 이유는 도외시한 채 그 참혹한 결과만을 드러내 놓으며 전 세계에 ‘가해자는 미국, 피해자는 일본’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넷게이 신문은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양국에 박힌 역사의 가시를 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시를 빼는 것만으로는 일본은 나아지지 않는다.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